

광주항쟁 열흘 ‘기승전결’ 예술로 승화

미리 가 본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

‘열흘간의 나비떼’ 주제로 금남로 재현 아스팔트 바닥 천정엔 희생자 기리는 신발 기억 복원·관람객 체험 방점

“옛 도청 원형 복원” 농성에 2·4관 등 콘텐츠 구축 중단 오늘부터 일반에 임시 개방

재작 음악가 윤이상 선생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작곡한 교향시 ‘광주여 영원하라’가 전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바닥면을 마감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가 눈길을 끈다. 80년 광주항쟁 당시 광주 금남로를 재현한 것이다.

천정에는 희생자를 상징하는 흰색 운동화 100여 켤레가 매달려 있다. 이는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1일에서 26일까지 ‘해방광주’ 상황을 ‘환희’라는 주제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전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 2관으로, 옛 전남경찰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했다.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을 11일 사전 공개했다. 시민들에게는 1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임시 개방된다. 민주평화교류원 시민 공개는 문화전당 개관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5·18민주평화기념관에서 선보인 전시 콘텐츠는 광주항쟁 열흘간을 기·승·전·결 구조로 나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열흘간의 나비떼’(가칭)를 주제로 1관부터 5관까지 작품이 전시돼 있다. 항쟁 기억의 복원과 예술적 승화, 관람객 체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옛 경찰청을 새롭게 단장한 5·18민주평

화기념관 1관에는 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집회와 차량시위, 금남로 집단 발포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내부에 들어 서면 3층 높이의 ‘5월엔 만인이 눈부시다’ 작품이 발길을 붙잡는다. 4각형 철골터워에 아시아 인권운동가 등 1100여명의 사진이 영상에 담겨 있다.

건물 내부에는 도청 분수대를 연상케 하는 분지형 공간을 만들고 38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남로에서 대치했던 시민군 버스와 군용차량 등도 재현돼 있다.

문화전당측은 전시공간 마다 옛 전남도청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헐어 내거나 떼어낸 벽돌, 나무바닥, 기와 등으로 설치 구조물을 늘렸다. 옛 자취를 보존하는 데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5·18민주평화기념관 4관(옛 전남도청 본관)에서는 시민수습위원들이 회의를 열었던 전남도 부지사실과 투사회보 등 역사적 공간과 유물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평화기념관 4관 등의 콘텐츠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대책위) 등의 원형복원 농성 등으로 콘텐츠 구축작업이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4관의 1층에 있는 광주항쟁 당시 상황실, 방송실 복원과 건물 외벽 총탄자국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시 콘텐츠는 1관(옛 경찰청 본관)만 완료된 상태다. 2관(경찰청민원실), 4관(도청본관)은 콘텐츠 구축이 중단됐고 3관(도청 회의실), 5관(상무관)은 건축 리모델링만 완료됐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5·18민주평화기념관 복원문제와 콘텐츠 구축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제 전시 콘텐츠는 1관(옛 경찰청 본관)만 완료된 상태다. 2관(경찰청민원실), 4관(도청본관)은 콘텐츠 구축이 중단됐고 3관(도청 회의실), 5관(상무관)은 건축 리모델링만 완료됐다.



1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에서 선보인 작품 ‘환희’. 80년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임시퇴각했던 상황을 ‘해방광주’로 형상화했다.

■ 문재인 대통령 호남 관련 말말말

“호남 차별 울분 풀어드리겠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 광주·전남을 방문해 “호남은 제1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밝히면서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28일 광주 집중유세에서 “지금

문재인이 이기고 있는 것은 우리 광주와 호남의 힘”이라며 “제가 꼭 대통령이 돼 최고의 국정운영으로 보답하겠다. 광주와 호남은 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광주가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역사, 그리고 저 문제

인인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역사가 꼭 같다”면서 “5·18때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또 다시 구속됐다. 광주시 민과 문재인은 몸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정신은 하나였다”면서 문재인과 광주정신의 동질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 3월 20일에도 광주를 방문.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광주의 자부심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호남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9년 간의 ‘호남 홀

대’를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호남 차별은 없다”면서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우뚝 설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권교체와 인사탕평, 일자리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식 잘되라고 회초리를 든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머니다. 광주·전남이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남표심에 간절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현철기자 cki@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 재원 마련 비상

사업비 1697억 확정...국비 123억 등 238억 줄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 사업비가 169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회시설 마련 및 운영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 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6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가 정부에 승인을 요구한 제출액이 1935억원인 만큼 238억원이 쏨 빼먹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482억원으로, 나머지 1215억원엔 시비와 임직원 판매, 기업후원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는 애초 요구한 사업비에서 국비를 606억원, 시비 716억원, 자체수입을 613억원으로 배분했다.

이번 총사업비에서 순수 국비 감소분은 124억원이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시비와 자체수입 부담분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제대회를 치를 비용을 정부가 미리 확정해 주도록 이 금액 내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광주시는 축소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조만간 시의회 동의를 얻은 뒤 정부와 국제행사 개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광주시는 최종 사업비 규모가 2013년 대회 유치 시 승인받은 635억원에 비해 2.7배 증가한 규모로 이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한 셈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가 요구한 사업비보다 200억원 이상 부족한 만큼 추가 재원마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추가해야 할 사업비는 기업후원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상을 통한 사업비 경감, 적극적인 마케팅 등 자체수입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회 경비 절감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도 한계가 있는 데다 경기불황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여파 등으로 기업후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 사업비 마련이 난제다.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7개국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26일(29일간)까지 경연과 다이빙 등 6개 종목이 펼쳐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득과 소통으로 총 사업비를 확정했다”며 “정부가 국비 추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명품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현철기자 cki@

‘문재인 시대’ 1면에서 계속

특히 요직인 예산실장 자리를 과거 10년간 이 지역 출신이 한 번도 올라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 지역 인사를 쓰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호소인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남도가 자체 파악한 정부 45개 기관의 광주·전남 출신 부이사관은 2016년 말 현재 모두 233명이다. 2014년(196명)에 비해 37명이 증가한 수치다. 2000년 이전 고시 합격자들이 최근 부이사관에 오르면서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 지역 공직자들의 분석이다. 국무총리실은 5명에서 4명, 행정부는 12명에서 7명으로 각각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반면 기재부 13명에서 17명, 외교부 15명에서 19명, 해수부 3명에서 7명, 방위사업청 1명에서 4명, 국회사무처 24명에서 30명으로 숫자는 늘었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와 강해진 서울대 박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직 중 호남 출신 비율은 김대중 정부가

지 10%대에 머물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어섰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6.8%,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대로 다시 낮아졌다. 각 지역 출신 정부직 비율을 지역별 인구와 비교하면 대체로 영남 지역은 인구에 비해 많은 정부직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및 국제청장·검찰총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사는 김대중·노무현·전두환 정부를 제외하면 한 사람도 없었다. 기관장은 물론 이들 권력기관 내부에서도 ‘유리벽’이 존재해 광주·전남 출신은 핵심 요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정권 10년 동안 보기 힘들었던 청와대 비서관과 각 부처의 주요 국·과장 자리에 호남인사를 30% 이상 배치하는 것이 호남 인사 배려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출신 고위직 공직자는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능력이나 서열 등에 관계없이 요직에 앉고 그렇지 못하면 한직에서 퇴임을 기다리는 인사 차별은 반드시 없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액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 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 2,100㎡ 매 36억원
- 치명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 490㎡ 건물 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 990㎡ 건물 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 308㎡ 건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 385㎡ 건물 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일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 200㎡ 매 11.8억원(보 9,500 월 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 471㎡ 매 14.8억원(보 1.5억 월 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 468㎡ 매 11.8억원(보 1.2억 월 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 503㎡ 매 9.3억원(보 8,000 월 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 1,050㎡ 매 50억원(보 6억 월 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 336㎡ 매 18억원(보 1.2억 월 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 397㎡ 매 17억원(보 1억 월 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 120㎡ 매 4.8억원(보 5,000 월 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 180㎡ 매 8억원(보 6,000 월 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 360㎡ 매 8.8억원(보 2.7억 보 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 310㎡ 매 10.3억원(보 3.7억 월 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 250㎡ 매 5.9억원(보 6,000 월 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 4동 대 6,150㎡ 매 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 48,600㎡ 매 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 745㎡ 매 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 770㎡ 매 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 33,070㎡ 매 6.5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료 대 290㎡ 매 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 2,115㎡ 매 2.8억원
8. 마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 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문의 010-2572-4663